

제 1 교시

국 어 영 역

성명

수험번호

3

[01~02] 다음은 교내 학생회장 후보의 출마 연설을 위한 연습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입니다.(이때 청중을 한 번 본다.) 저는 여러분께 아무리 사소한 불편함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발로 뛰는 학생회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여러분 이 학력을 증진하고, 학창 시절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여러분께서는 학력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본다.) 저는 개개인의 집중력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중 집중력은 개인 차원의 문제여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학습 환경만큼은 우리들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은 (잠시 멈추었다가) 학교에 건의함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담긴 여러분의 생각들을 연구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게요. 아주 사소하지만 제 생각도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 스스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려고 해도 학교 환경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말끝을 흐린다.)

그리고 여름철에 체육복과 먼티 등을 입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이 너무 더울 때 체육복 반바지에 먼티만 입죠? 그런데 선생님(선생님 목소리를 흉내 내며)“그게 학생의 복장이나?”라는 식으로 꾸중을 하세요. 여러분은“너무 더워서 공부 잘 안 돼서 그랬어요.”라는 식으로 항변해 보지만 오히려 별점만 부여받는 경우까지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이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너무 더워서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든 것과 공부할 때 이 일이 생각나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공부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경험이나 소양을 쌓아 온 학생을 바라고 있어요. 그에 반해 우리 학교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시간에 자율 학습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다 보니 자율 활동 시간이 학생들에게 쉼 시간이 되곤 하죠. 물론 학습 시간을 확보하려는 학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학습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시간만큼은 책을 읽든지 농구를 하든지 학생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작아진다.)

흔히들‘학생은 학교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학생들과 관련된 일들에 학생들의 생각이 잘 반영되지 않

는 것 같아요. (차분한 목소리로) 저! 기호 1번 ○○○을 학생회장으로 뽑아 주시면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힘쓸게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인다.)

1. 위 후보의 선거 참모들이 연습 장면을 보고 <보기>에 유의하여 조언해 준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1)

< 보 기 >

-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사용하는가?
- 성량, 어조, 시선, 표정, 몸짓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 말하기의 목적, 대상, 상황에 적합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가?

- ① 주장하고자 하는 공약의 핵심 주제를 발표 도입부에서 먼저 밝히는 것이 좋겠어.
 ② 공약이 잘 구분되도록‘두 번째 약속’과‘세 번째 약속’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③ 확산에 찬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단호하면서도 좀 더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겠어.
 ④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제시하는 공약의 순서에 맞춰 손가락을 펼치는 것이 좋겠어.
 ⑤ 강당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는 것이니까 공식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2. 다음의 상황을 바탕으로 연설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

학생 1: 야, 이번 선거 재미있겠다. 박빙의 승부잖아. 내일 후보들 간 합동 연설이 있는데, 넌 누구를 찍을 거야?

학생 2: 음, 난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후보를 찍을 거야. 요즘 급식이 좀 부실해졌잖아. 사실 난 학교에서 밥 먹는 재미로 살거든. 또 밥을 든든히 먹어야 공부도 잘 되는 것 아니겠어?

학생 1: 난 말이야. 농구 골대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점심시간에 서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난 적도 있거든.

학생 2: 어쨌든 터무니없는 공약 대신 봉사 활동 기관을 몰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 기관을 연결해 주겠다는 것처럼 실제로 적용 가능하고 학생들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했으면 해.

- ① 체육 활동과 관련된 방과 후 수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주장해야겠어.
- ② 학창 시절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③ 건의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학생들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임을 강조해야겠어.
- ④ 창의적 체험 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운동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학교에 건의하겠다고 주장해야겠어.
- 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설문 조사 등 급식 제도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접근하겠다는 공약을 추가해야겠어.

마침 이 강당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니 구체적으로 소셜 미디어의 종류를 자료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트위터이고요.



다음 이 화면이 페이스북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블로그는 컴퓨터상에서 많이 보셨지요.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약 800만 명 정도인데요. 이 사용자 수치는 유력한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 시청자 수에 버금간다고 하니 소셜 미디어가 이제 우리 곁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소셜 미디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우선, 트위터는 양방향성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소통을 하기 위한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에 참여하여 정보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와 허위 정보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⑩ 얼마 전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했을 때, 뉴욕시 전체가 단전될 것이라는 소문이 트위터를 통해 삼시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렸죠. 결국 허위 정보로 밝혀졌지만 소셜 미디어의 특성상 허위 정보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3. 화법의 요소와 관련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³⁾

- ① ㉠은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은 공간적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은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적 상황을 고려하여 말하고 있다.
- ④ ㉣은 강연을 듣는 청중이 지닌 특성을 의식하여 말하고 있다.
- ⑤ ㉣은 청중의 관심을 고려하여 알기 쉽게 화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03~04] 다음 강연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 연구원입니다. ㉠(머리를 긁적이며) 책상에서 연구만 하던 제가 여기 평생 교육원에서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하신 많은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니까 쑥스럽습니다. (객석을 죽 둘러보며) 하지만 ㉡(외관도 멋지고 시설도 좋고 아늑한 분위기)도 나는 이 강당에서 여러분들을 뵈게 되니 오늘의 주제인 소셜 미디어에 대해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점심시간 직후) 여러분들 졸리지 않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친척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분은 '소셜'을 '소설'로 알아듣고 언론학을 공부하는 제가 문학으로 전공을 바꿨나 하시더라고요. (청중들 웃음)

㉣(지금 이곳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소셜 미디어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한마디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트위터 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4. [A]에서 활용한 강연 전략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⁴⁾

- ① 강연의 내용을 상반된 관점으로 제시한다.
- ② 청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한다.
- ③ 화제에 대한 정보를 청중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 ④ 강연자가 의도하는 대로 청중들의 태도 변화를 유도 한다.
- ⑤ 청중들에게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정신적 긴장감을 해소한다.

5. <보기>는‘반 단체 티셔츠 구입’과 관련된 대화이다. 주인’과‘학생’의 대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⁵⁾[3점]

< 보 기 >

학생: 아저씨, 학교 체육대회때 입을 우리 반 단체 티셔츠를 주문하려고 왔습니다.

주인: 학생들이 주로 입는 티셔츠는 만 원이란다.

학생: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깎아 주세요. 칠천 원으로.

주인: 그건 안 돼. 학생용 티셔츠를 만 원 이하로 판매한 적이 없어.

학생: 아저씨, 알아보니까 제 친구는 여기서 칠천 원에 구입했대요. 그 말 듣고 여기로 왔는데, 깎아 주세요.

주인: 난 손님들을 차별하지는 않아. 칠천 원에 구입했다면 아마도 그만큼 다른 스포츠 용품을 함께 구입해서 깎아 준 걸 거야. 티셔츠만 구입할 때는 깎아준 적이 없어.

학생: 학생들이 돈이 넉넉할 리는 없잖아요. 모두들 자기 용돈 아껴서 반 티셔츠 맞추는 건데, 깎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주인: 애, 아저씨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잖니? 이득이 좀 남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데 겨우 한 반 단체 티셔츠를 팔아서.....

학생: 그럼, 티셔츠를 구입하는 반이 더 많으면 가능 할까요?

주인: 글썄, 그렇다고 하면이야 뭐.

학생: 그럼, 아저씨, 제가 우리 학교에서 다섯 개 반을 더 섭외해서 아저씨 가게에서 반 티셔츠를 구입하도록 주선할게요. 그 대신 티셔츠 가격을 칠천 원으로 깎아 주세요.

주인: 음, 좋아. 그렇게 하자.

- ① 주인은 형평성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 ② 주인은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 ③ 학생은 사전에 얻은 정보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 ④ 학생은 상대방의 발화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다.
- ⑤ 학생은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을 절충한 타협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06~07] 다음은‘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번역 문화 개선 방안’에 관해 구상한 내용과 실제로 작성해 본 논술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구상한 내용

I. 처음

●독자들의 관심을 어떻게 유발할까?

→ 우리나라 번역 도서의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하는 게 좋겠어.....㉠

II. 중간

●현상의 원인이 뭘까?

→ 번역 도서가 넘치게 된 이유를 국내 출판 시장의 현실과 관련지어 살펴봐야겠어.㉡

●반론도 제시할 필요가 있겠지!

→ 번역 도서의 가치를 제시하고 번역 도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소개해야겠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부각할까?

→ 출판사의 상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되겠지.㉣

III.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번역 문화의 기반을 새롭게 닦아야 함을 주장해야겠어.㉤

○논술문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책 중에서 번역 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10년 사이에 무려 두 배나 높아졌다. 이러한 우리의 출판 시장은 저작권을 수출하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매력적이다.

이렇게 번역 도서가 넘치는 이유는 시장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출판사 입장에서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국내 도서보다는 상품성이 인정된 책을 짧은 기간에 번역하여 내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번역 도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번역 도서를 통해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손쉽게 받아들이고 공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역이 심한 번역 도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번역 도서의 문제점은 번역 도서는 많지만 몇 몇 나라의 상업적인 책에 치중해 있고, 상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명인의 이름만을 ㉠유용하는 대리 번역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원서를 여러 권으로 분책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한 출판의 속도는 빠르지만 번역 도서의 질은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어느 유명한 판타지 소설의 경우 원작은 7권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20권이 넘는다.

이러한 번역 도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 문화 강국을 꿈꾸는 것은 어렵다. < ㉢ > 번역자 양성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번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번역이 학계에서 학문적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보상이 부족해 실력 있는 번역가들이 번역을 기피하는 것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출판 시장의 개방은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

국어 영역

대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나라가 진정 문화 강국으로
⑥나아가게 되려면 번역 문화의 기반을 새롭게 닦아야 한다.

6. ㉠~㉥ 중 논술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6)

- ①㉠ ②㉡ ③㉢ ④㉣ ⑤㉥

7. 윗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

- ① ㉠은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오용'으로 고쳐야겠어.
② ㉡는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바로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③ ㉢에는 문장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무엇보다도'를 넣는 것이 좋겠어.
④ ㉣는 글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⑤ ㉤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므로 '나아가려면'으로 고쳐야겠어.

[08~0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그림을 보고 글로 표현해 보자.



작문 과제 수행을 위한 글쓰기 전략

오늘 작문 과제는 그림을 보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개의 모습을 각각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런데 내용에 인과성이 부족하여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개를 쓰다듬는 학생과 개, 말을 하는 학생과 시각 장애인 어른의 행동과 표정에 주목하고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상황을 만들어 이야기를 꾸미기로 했다.

학생의 글

안내견과 함께 길을 가던 시각 장애인이 약국을 찾고 있었다. 마침 두 학생이 이를 알아차리고 도와주려고 했다. 한 학생은 시각 장애인에게 약국의 위치를 말로 설명해 주었고, 다른 학생은 안내견이 대견한 생각이 들어 쓰다듬으려고 했다. 그 순간 학생의 손길에 불안함을 느낀 안내견이 움직였고 시각 장애인은 안내견의 끈을 놓치고 말았다. 시

각 장애인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처럼 남을 돕는 일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시각 장애인을 도와준다고 방문이나 차 문을 열어 주면 문에 부딪히거나 위치를 잘못 잡아 넘어질 수도 있다. 손잡이에 손이 닿도록 안내해야 한다. 시각 장애인과 동행 하는 안내견을 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견하다는 생각에 안내견을 쓰다듬는 등의 행동은 안내견의 주의를 분산시켜 시각 장애인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남을 돕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8. 작문 과제 수행을 위한 글쓰기 전략'에 비추어 볼 때, 학생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8)

- ① 예상 독자를 미리 설정하여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
② 대상과의 친근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다.
③ 삶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대조의 방법을 활용한다.
④ 대상의 위치와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공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⑤ 유기적인 서사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대상의 행동에 연관성을 부여한다.

9. 학생이 작성한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려고 한다. 이를 위한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

- ① 인터넷은 다중을 대상으로 하므로 장애인을 돕는 기술과 기구의 발달 과정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어.
② 인터넷에는 다양한 시각 자료를 올릴 수 있으므로 장애인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올려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겠어.
③ 인터넷은 클릭만 하면 곧바로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안내견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참고 자료를 링크해 놓는 것이 좋겠어.
④ 인터넷의 특성상 댓글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므로 누리꾼이 장애인을 돕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
⑤ 인터넷에서는 동영상상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을 도우면서 생길 수 있는 극적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탑재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좋겠어.

10. 다음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신설 코너를 알리는 안내문이다. 안내문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3점]

○○ 소식 > 공지 사항
제목 문학 작품 소개 코너 안내
번호 31 조회수 153 작성자 ○○○ 등록일 2013-05-03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 교수들에게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작품에 대해 두세 줄 정도의 간단한 소개 글을 올려주세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반영하여 글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제목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작품 읽기를 우회적으로 권유해 주세요.

- ① 이근삼, 「원고지」 - 「원고지」라는 제목에는 '무의미한 일상에 갇힌 현대인의 삶'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파편화된 현대 사회를 고발한 재미있는 희곡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 보세요.
②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 오르막길을 다 올라가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 할 때 희망도 다가옵니다. 이 시를 통해 절망 속에 피어나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전광용, 「꺼빠만 리」 - 시류에 따라 변절하며 부와 명예를 얻는 기회주의자 이인국 박사를 풍자한 작품입니다. 해학과 비판이 담겨 있는 풍자 소설의 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④ 김만중, 「구운몽」 - 「구운몽」은 '아름다운 사람의 덧없는 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설은 뜬구름을 좇아가듯 세속적 욕망에 얽매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⑤ 김소운, 「피판 문답」 - 「피판 문답」은 '썩기 직전까지 묵어야 제맛이 난다'는 오리알과 관련된 대화'라는 뜻입니다. 피판과 같은 원숙한 인생의 맛을 원하신다면 이 수필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1.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

< 보 기 >

음운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 변동의 한 예로 ㉠'음운 축약'이 있다. 자음 축약의 경우는 'ㄱ, ㄷ, ㄴ, ㄷ'과 'ㅎ'이 만나면 축약되어 거센소리 'ㄱ, ㄷ, ㄴ, ㄷ'이 된다. 모음 축약의 경우 모음 'ㅣ'나 'ㅏ/ㅑ'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이루게 된다.

- ① 그가 꿈쩍도 않던 돌을 움직이자 모두 놀랐다.
② 그것이 아무리 줄아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③ 기차 출발 시간에 잘 맞춰 나오니까 매우 편했다.
④ 이번에는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려 줄 수 있겠니?
⑤ 오랜만에 친구들이 빠짐없이 와서 매우 즐거웠다.

12. <보기>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

< 보 기 >

동사에는 어떤 동작을 스스로 하는 주동사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사가 있다.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동사를 사 동사로 만들면 된다.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 때는 접미사 '-이-, -히-, -기-, -리-, -우-, -구-, -추-' 등을 사용한다.
㉠ (주동문) 동생이 운다. ⇒ (사동문) 형이 동생을 울린다.
㉡ (주동문) 동생이 옷을 입는다. ⇒ (사동문)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힌다.

- ①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는군.
② 목적어를 가진 주동문만 사동문으로 만들 수 있겠군.
③ ㉠은 ㉡과 다른 접미사를 사용하여 사동문을 만들었군.
④ 사동문에서는 주동문과 다른 새로운 동작 주체가 나타나군.
⑤ 주동문의 동작 주체가 사동문에서는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는군.

국어 영역

13. <보기>를 이용해서 문장의 구조에 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

< 보 기 >

- ㄱ. 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ㄴ. 그녀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ㄷ. 민정이는 발에 땀이 나도록 걸었다.
 ㄹ. 지금은 영화관에 가기에 늦은 시간이다.

- ① ㄱ에서 '인정이 많으시다'는 '아버지께서는'의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 서술절입니다.
 ② ㄴ의 '뺨에 흐르는'은 '눈물'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입니다.
 ③ ㄷ의 '발에 땀이 나도록'은 '발에 땀이 나다'에 '-도록'이 붙어 만들어진 부사절입니다.
 ④ ㄹ에서 '영화관에 가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로,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⑤ ㄴ의 '뺨에 흐르는'과 ㄷ의 '발에 땀이 나도록'은 모두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4. 다음 내용을 학습한 학생들이 <보기>의 ㄱ~ㄹ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

문장에서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어떤 서술어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보어, 또는 부사어 중 하나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서술어는 문장 성분을 세 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 보 기 >

- ㄱ. 얼음이 물이 되었다.
 ㄴ.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
 ㄷ. 이것이 실물과 똑같아요.
 ㄹ. 학생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ㅁ. 그는 교직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았다.

- ① ㄱ: '되었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ㄴ: '피다'는 부사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③ ㄷ: '똑같다'는 주어 외에도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ㄹ: '먹다'는 주어 외에도 관형어와 목적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⑤ ㅁ: '삼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15.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15)

< 보 기 >

- 다의 관계: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관계. 두 단어의 의미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
 예) 손- ㄱ. 손이 작다.(신체 일부)
 ㄴ. 손이 부족하다.(일손)
- 동음이의 관계: 두 단어가 소리는 같으나 다른 의미를 가지는 관계. 두 단어의 의미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
 예) 손- ㄱ. 손이 작다.(신체 일부)
 ㄴ. 손을 맞이하이다.(손님)

- ① 바람이 무척 차다. 힘차게 공을 차다.
 ② 그녀가 물건을 훔치다. 행주로 식탁을 훔치다.
 ③ 어제 저녁부터 백가 아팠다. 그가 타자마자 백가 떠났다.
 ④ 칼이 잘 들어 요리하기가 편했다. 건넌방은 별이 잘 들어 따뜻하다.
 ⑤ 삼촌이 다리를 절룩거리며 집에 갔다. 멀쩡해 보였던 책상 다리가 부러졌다.

1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6)

< 보기1 >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의문문을 나타내는 형태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의 경우에는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ㅏ'나 'ㅑ'의 형태인 반면,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의 경우에는 'ㅓ'의 형태로 끝맺는다. 한편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ㄴ다'의 형태가 사용된다.

< 보기2 >

- ㄱ. 서경은 평안한가 물론가 (서경은 평안한가 물론한가?) (두시연해 18, 5)
 ㄴ. 고원은 이제 엇더하고 (고원은 이제 어떠한가?) (두시연해 25, 24)
 ㄷ. 네 엇데 안다 (너는 어찌 알았느냐?) (월인석보 23, 74)

국어 영역

① 민형: ㄱ의 ‘몹흔가’와 현대 국어 ‘몹한가’를 비교해 보니 의문사가 없는 경우 둘 다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의 형태가 같군.

② 채은: ㄴ의 ‘엇더흔고’와 현대 국어 ‘어떠한가’를 비교해 보니, 의문사가 있을 경우 중세 국어는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의 형태가 현대 국어와 다르군.

③ 영문: ㄴ의 ‘고원온’을 ‘네(네가)’로 바꾸게 되면, 의문문의 형태가 달라져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ㅏ’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군.

④ 성환: ㄷ은 주어가 ‘네’인 점으로 보아 ‘-ㄴ다’가 현대 국어와 달리 특이하게 의문문에 사용된 예이군.

⑤ 소영: ㄷ의 주어를 ‘따리(딸이)’로 바꾸면, ㄴ과 마찬가지로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ㅏ’의 형태로 나타나겠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이슬란드는 지진과 화산 분출 같은 지각 변동이 매우 활발한 화산섬이다. 동서로 약 540 km, 남북으로 약 350 km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슬란드는 일부 지역이 지난 2만 년 동안 쌓인 용암으로 뒤덮여 있다. 활발한 지각 변동 덕분에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화산의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고, 온천수로 작물을 재배하며, 화산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등 지질학적 특성을 이용하며 살아오고 있다.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인 위치는 매우 특수하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슬란드는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선인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해 있다. 대서양의 해저에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은 북극해에서부터 아프리카의 남쪽 끝까지 긴 산맥의 형태로 뻗어 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분이 해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인 아이슬란드는 서쪽은 북아메리카 판, 동쪽은 유라시아 판에 속해 있어 지리적으로는 한 나라이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판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 판의 경계가 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육지 위에서 두 판이 확장되는 희귀한 지역이다. 아이슬란드가 위치한 판의 경계에서는 새로운 암석이 생성되면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는 다른 판의 경계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지질학적 현상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중심부를 지나가는 대서양 중앙 해령의 갈라져 있는 틈이 매년 약 15 cm 씩 벌어지고 있다. 이 벌어지는 틈으로 해양 지각의 하부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지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해양 지각은 멀어져 가는 판의 일부가 되어 이동한다. 그 결과로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은 아이슬란드가 위치해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판의 절대 속도를 잴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북아메리카 판에 대한 유라시아 판의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를 추정하여 판의 이동 속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알아낸 판의 이동 속도는 이동하는 판 위에서 이동하는 다른 판의 속도를 잴 것이다. 이는 한 판이 정지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판의 속도, 즉 상대 속도이다. 과학자들은 상대 속도를 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판의 절대 속도, 즉 지구의 기준점에 대해서 판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도 알고자 했다. 판의 절대 속도를 ㉠ 구하기 위해서는 판의 운동과는 독립적으로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의 맨틀 깊숙이 위치한 마그마의 근원지인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하였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100여 개의 열점을 찾아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아이슬란드에 있다.

17. 위 글로 보아 과학자들이 아이슬란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바르게 묶은 것은?17)

〈보 기〉

- ㄱ. 판이 확장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 ㄴ. 판의 모양과 크기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 ㄷ.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 준다.
- ㄹ. 판의 생성 연대를 측정할 수 있게 해 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8. 위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8)[3점]

- ① 아이슬란드는 지열 산업이 발달해 있을 것이다.
- ② 아이슬란드의 크기는 서서히 커지고 있을 것이다.
- ③ 북아메리카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이동 속도가 빠를 것이다.
- ④ 아이슬란드의 화산 분출은 판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⑤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의 해저 산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19.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9)

- ① 귀성 차표가 매진되기 전에 빨리 구해야겠다.
- ② 농사철에는 일꾼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③ 그는 한 시간 내에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④ 철수는 영수의 동의를 구한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 ⑤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일수록 답을 구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진술은 다양한 물질의 감광성에 대한 길고도 지루한 실험의 토대 위에서 출현하였다. 상(像)을 정착시키는 기술의 선구자인 니에프스와의 공동 연구 이후 다게르는 1837년에 동판 위에 감광성 물질인 요오드화은을 점착시키고 암상자 속에서 빛에 노출시킨 다음, 수은 증기를 쐬어 세부 묘사가 대단히 정밀한 상을 얻어 내었다. 한편 영국인 톨벳은 1835년에 최초의 ‘감광 소묘’에 성공했는데 이것은 염화은으로 감광성을 띠게 한 종이 위에 물건이나 식물을 놓고 산출한 음화(陰畵)였다. 그 직후 그는 작은 암상자를 이용하여 사물의 영상을 종이에 정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거친 종이 면에 정착된 톨벳의 영상은 매끈한 다게르 동판의 선명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나) 1839년에 두 기술의 운명을 갈라놓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게르는 ‘다게레오타입’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기술을 프랑스 정부에 인도하는 대가로 거액의 종신 연금을 약속 받았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다게레오타입의 제작 비결을 공개했고 이로써 저작권이 없어진 이 기법은, 다게르가 특허를 낸 영국을 제외하고 세계 어디서나 아무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게레오타입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다) 한편 톨벳의 기법은 휴대의 간편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톨벳은 계속된 연구를 통해 1840년에 암상자에서 얻은 음화를 현상하여 여러 장의 양화(陽畵)를 인화하는 음화-양화 기법 개발에 성공하였다. 다게레오타입은 한 번의 촬영으로 단 한 장의 사진만을 얻을 수 있었으나 톨벳의 새 기술은 여러 장의 똑같은 종이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사진을 다량으로 복제하는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톨벳은 자신의 새로운 기법을 ‘칼로타입’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톨벳이 칼로타입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고 그 기술에 대해 많은 사용료를 ㉠ 요구하는 바람에 이 기술의 확산에는 제동이 걸렸다.

(라) 사진이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 준 분야는 초상 사진이었다. 정밀한 세부 묘사를 장점으로 하는 다게레오타입은 초상 사진 분야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여러 곳에 사진관이 들어서서 영구적인 초상을 금속판에 남기는 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반면에 명암의 차이가 심하고 중간색이 거의 없었던 칼로타입은 초상 사진보다는 풍경·정물 사진에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 특허에 묶여 있었던 칼로타입이 그나마 퍼질 수 있었던 곳은 프랑스였다. 프랑스의 화가와 판화가들은 칼로타입이 흑백의 대조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판화와 유사함을 발견하고 이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마) 사람들의 지속적인 압력과 설득으로 톨벳은 1852년에 초상 사진 영역을 제외하고 칼로타입의 특허권을 포기했다. 그렇지만 영국에서 이 기법을 유행시키기에는 때가 이미 늦었다. 1850년대 초에 콜로디온을 유리에 발라 선명한 음화를 얻고 그것에서 원하는 대로 양화를 얻을 수 있는 콜로디온

기법이 특허권 없이 공개되면서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은 모두 퇴조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20. 위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20)

- ① 초기 사진술의 원리
- ② 초기 사진술의 장점과 단점
- ③ 초기 사진술의 보급과 쇠퇴
- ④ 발명과 창의적 발상의 관계
- ⑤ 특허가 기술 보급에 미치는 영향

21. 위 글에 따라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을 비교하여 만든 표에서 잘못된 부분은? 21)[3점]

	다게레오타입	칼로타입
① 용도	인물 사진	풍경·정물 사진
② 사진판의 재질	동판	종이
③ 주요 보급 지역	프랑스, 미국	프랑스
④ 영상의 특징	정밀한 세부 묘사	다양한 중간색
⑤ 복제 가능성	복제 불가능	다량 복제 가능

22. (가)~(마)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

- ① (가): 다게르와 톨벳은 다른 감광 물질을 사용했었군.
- ② (나): 프랑스 정부는 기술의 공공화에 기여했군.
- ③ (다): 우수한 기술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야.
- ④ (라): 당시에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초상 사진을 찍는 일이 많았겠어.
- ⑤ (마): 콜로디온 기법은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의 장점을 모두 가졌겠군.

23. ㉠의 ‘-는 바람에’와 의미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23)

- ① 함께 늙어 가는 마당에 가릴 것이 뭐가 있소?
- ② 친구들이 떠드는 통에 교실에서 공부할 못 하겠다.
- ③ 이 일이 들통 나는 날에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 ④ 아직 거기까지는 멀었으니 참는 김에 더 참아 봅시다.
- ⑤ 경찰에서 풀려나는 길로 나는 그 애를 따라 서둘러 갔어.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 발레 ‘백조의 호수’ 같은 것이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물론 이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질문이 이것들 모두를 예술 작품으로 특징짓는 속성, 곧 예술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무엇이 될까?

사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 어떤 그룹에 속한 것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속성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 이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예술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러한 가정 하에서 전개되었다. 그래서 예술은 곧 모방이라는 서양의 전통적 시각이나,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라는 주장, 또 예술은 형식이라는 주장까지 모두 예술의 본질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정답으로 경쟁한다면, 그 중 어느 것이 정말 예술의 본질인가?

20세기 들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이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을 예로 든다. 누군가가 게임의 본질적 속성을 ‘경쟁’으로 본다고 해 보자. 곧 반례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은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졌지만 게임은 [가] 아니다. 한편 게임 중에도 경쟁이 아닌 것이 있다. 무려 한 시간에 ㉢ 혼자 하는 카드놀이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 가다 보면 모든 게임에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바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게임은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게임이라 불리는 것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우 발견되는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라 부르기 위해 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머니와 나와 ㉣ 동생의 외양은 이런저런 면에서 서로 닮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셋이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 비슷한 예로 실을 꼬아 만든 **밧줄**은 그 밧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실**들의 연속된 연결을 통해 구성된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전혀 만나지 않는 실들도 같은 밧줄 속의 실일 수 있다.

미학자 와이츠는 예술이라는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그에게 예술은 가족 유사성만을 갖는 ‘열린 개념’이다. 열린 개념이란 주어진 대상이 이미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 구성원 일부와 닮았다면, 그 점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그 개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만큼 테두리가 열려 있는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예술론인 표현론이나 형식론은 있지도 않은 본질을 찾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 와이츠는 표현이니 형식이니 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차라리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열린 개념으로 예술을 보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접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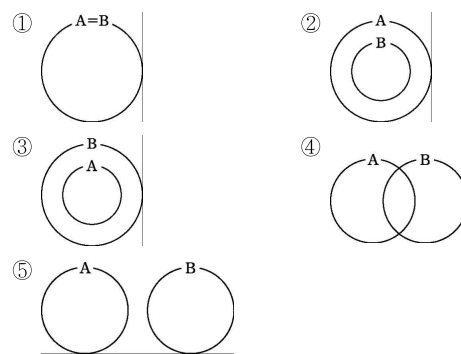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

- ① 친숙한 사례를 통해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
- ② 상반되는 관점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타인의 견해에 기대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④ 유추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25. 위 글을 읽고 와이츠 예술론의 의의나 한계에 대해 토론했다고 할 때,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은? 25)[3점]

- ① 와이츠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 개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확장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셈이지.
- ② 와이츠는 예술의 본질은 없다고 본 거야. 예술이 가족 유사성만 있는 열린 개념이라면 어떤 두 대상이 둘 다 예술이면 서로 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긴군.
- ③ 와이츠는 무엇이 예술인가와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같아. 열린 개념이라고 해서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까지도 포기한 것은 아니야.
- ④ 현대 예술은 독창성을 중시하고 예술의 한계에 도전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예술의 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되었어. 와이츠 이론은 이러한 상황에 잘 부합하는 예술론이야.
- ⑤ 영화나 컴퓨터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새로운 창작 활동이 가능해지지. 미래의 예술이 그런 것들도 포괄하게 될 때, 와이츠 이론은 유용한 설명이 될 수 있어.

26.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임’(A)과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진 것’(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6)



27. ㉠에서 ‘밧줄’과 ‘짧은 실’의 관계로 보아 ㉡~㉤ 중, 문맥상 이질적인 하나는? 27)

- ① ㉡ ② ㉢ ③ ㉣ ④ ㉤ ⑤ ㉥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사 연구에서 임진왜란만큼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연구 주제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편향적이었다. 즉,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만 제시되면서, 그 이면의 다양한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의병의 봉기 원인은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의병이 봉기한 이유를 주로 유교 이념에서 비롯된 ‘임금에 대한 충성’의 측면에서 해석해 왔다. ㉠ 실제로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의병장이 띄운 격문(檄文)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일면 타당하다. 의병장은 거의가 전직 관료나 유생 등 유교 이념을 깊이 체득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킨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이 의병에 가담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하다.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임진왜란을 당했던 데다가, ㉡ 전쟁 중에 보였던 조정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당시 조선 왕조에 대한 민심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오로지 임금에 충성하기 위해서 의병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득한 ㉢ 한자투성이 격문의 내용을 백성들이 얼마나 읽고 이해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의병의 주축을 이룬 백성들의 참여 동기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의병들은 서로가 혈연(血緣) 혹은 지연(地緣)에 의해 연결된 사이였다. 따라서 그들은 지켜야 할 공동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결속력도 높았다. 그 대상은 멀리 있는 임금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이었으며,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다. 백성들이 관군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의병에 참여했던 까닭도, 조정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해야 하는 관군과는 달리 의병은 비교적 지역 방위에만 충실하였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의병을 제외하고는 의병의 활동 범위가 고을 단위를 넘어서지 않았으며, 의병들 사이의 연합 작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병장의 참여 동기도 단순히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는 명분적인 측면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의병장들은 대체로 각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갖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그러한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 의병장들이 지역적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유교적 명분론과 결합하면서 의병을 일으키는 동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관군의 잇단 패배로 의병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 조정에서는 의병장에게 관직을 부여함으로써 의병의 적극적인 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관료가 되어야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관직 임명은 의병장들에게 큰 매력이 되었다.

28.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28)

- ① 의병의 참여 동기 ② 의병장의 이념적 기반
- ③ 의병장과 조정의 관계 ④ 의병의 전투 활동 실태
- ⑤ 의병 활동의 공간적 범위

29. ㉠~㉤ 중, <보기>의 역사 자료 ㄱ과 ㄴ을 그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29)[3점]

—<보 기>—

ㄱ. 왜적이 대동강변에 나타나자 조정의 대신들은 피난을 떠나기 위해 먼저 평양성을 나갔다. 이에 성안의 아전과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칼을 빼어 들고 그 길을 막으면서 크게 꾸짖어 말하였다. “너희들은 평소에 나라의 녹봉만 훔쳐 먹다가 이제 와서는 나라일을 그르치고 백성들을 속임이 이와 같으냐?”

ㄴ. “진실로 기운을 내고 떨쳐 일어나, 우리 조상 임금님들께서 남기신 은덕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창고에 가득한 물건과 벼슬자리를 나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는 아름다운 칭송이 있을 것이고, 자손에게까지 은택이 흘러 전해질 것이니, 어찌 홀륭하지 않으랴!”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30. [A]의 내용에 근거하여 의병에 참여한 일반 백성의 심경을 추론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30)

- ① 관군에 들어가느니 의병이 낫고말고.
- ② 조정의 명이 있으니 기꺼이 동참해야지.
- ③ 사랑하는 처자식은 내 손으로 지켜야지.
- ④ 내 고장에 왜놈들을 들여놓을 수야 있나.
- ⑤ 친구도 많고 친척도 있으니 싸울 힘이 나는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머니에는 단돈 십 전, 그도 안정다리를 고친다고 벌써 세 번쨰가 네 번째 딸에게서 사오십 전씩 얻어 가지고는 번번이 담뱃값으로 다 내어 보내고 말던 최후의 십 전, 안 초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을 집어내었다. 백통화 한 켤을 얻은 ㉠ 야원 손바닥, 가만히 떨리었다. 서 참위(徐參尉)의 투박한 손을 생각하면 너무나 얇고 잘망스러운 손이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따금 술잔은 얻어먹고, 이렇게 내 방처럼 그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빌려 자전만 한 번도, 집 거간이나 해먹는 서 참위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았다. 그래도 언제든지 한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과 내 낮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부딪쳐 보려니 믿어졌다.

초시는 전에 어떤 관상장이의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주먹을 쥐어야 재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다. 늘 그렇게 쥐노라고는 했지만 문득 생각이 나 내려다볼 때는, 으레 엄지손가락이 알뜰도록 밖으로만 쥐어져 있었다. **그레 드림전**을 하다가도 실패를 하였고, **그레** 집까지 잡혀서 **장전**을 내었다가도 그만 화재를 보았거니 하는 것이다.

㉡ “이놈의 엄지손가락아, 안으로 좀 들어가아, 켜—장.”

하고 연습 삼아 엄지손가락을 먼저 안으로 넣고 아프도록 두 주먹을 꽉 쥐어 보았다. 그리고 당장 내어 보낼 돈이면서도 그 십 전짜리를 그렇게 쥔 주먹에 단단히 넣고 담배 가게로 나갔다.

이 복덕방에는 흔히 세 늙은이가 모였다.

언제 누가 와 집 보러 가잖지 몰라, 늘 갓을 쓰고 앉아서 행길을 잘 내다보는, 얼굴 붉고 눈방울 큰 노인이 주인 서 참위다. 참위로 다니다가 합병 후에는 다섯 해를 놀면서 시기를 엿보았으나 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력저력 심심파적으로 갖게 된 것이 이 가옥 중개업이었다. 처음에는 겨우 굶지 않을 만한 수입이었으나 **대정 팔구 년** 이후로는 시골 부자들이 세금에 몰려, 혹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만 몰려들고, 그런데다 돈은 흔해져서 관철동 다옥정(茶屋町) 같은 중앙 지대에는 그리 고옥만 아니면 만 원대를 예사로 훌훌 넘었다. 그 판에 봄가을로 어떤 달에는 삼사백 원 수입이 있어, 그러기를 몇 해를 지나 가회동에 수십 칸 집을 세웠고 또 몇 해 지나지 않아서는 창동 근처에 땅을 장만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중개업자도 많이 늘었고 건양사 같은 큰 건축 회사가 생겨서 당자끼리 직접 팔고 사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중개료의 수입은 전보다 훨씬 준 셈이다. 그러나 이십여 칸 집에 학생을치고 싶은 대로 치기 때문에 서 참위의 수입이 없는 달이라고 쌀값이 밀리거나 나무 값에 줄릴 형편은 아니다.

㉢ “세상은 먹구 살게는 마련이야…….”

서 참위가 흔히 하는 말이다. 칼을 차고 훈련원에 나서 병법을 익힐 때는 한번 호령만 하고 보면 산천이라도 물러설 것 같던 그 기개와 오늘의 자기, 한낱 **가궤**(家僮)로 복덕방 영감으로 기생 작부 따위가 사글세 방 한 칸을 얻어 달래도 네에네 하고 따라 나서야 하는 만인의 심부름꾼인 것을 생각하면 ㉣ **서글픈 눈물**이 아니 날 수도 없는 것이다. 워낙 술을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남몰래 이런 감회를 이기지 못해서 술집에 들어선 적도 여러 번이다.

(중략)

박희완 영감이란 세 영감 중의 하나로 안 초시처럼 이 복덕방에 와 자기까지는 안 하나 꽤 쓸쓸히 놀러 오는 늙은이다. 아니, 놀러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는 공부도 한다.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 대서업(代書業) 운동을 한다고 「**속수 국어독본**(速修國語讀本)」을 노상 끼고 와 그 ㉤ 「**삼국지**」 읽던 투로,

“긴—상 도코-에 유키이마스카.(김 선생, 어디 가십니까.)”

어찌고를 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속수국어독본」 뚜껑이 손때에 절고, 또 어떤 때는 목침 위에 받쳐 베고 낮잠도 자서 머리때까지 새까맣게 절어 조선총독부편찬(朝鮮總督府編纂)이란 ㉥ **잔** 글자들은 보이지 않게 되도록, 대서업 허가는 의연히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너나 내나 다 산 것들이 엮은 가져 뭘 하니. 무슨 세월에……. 흥!”

하고 어떤 때, 안 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떼다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희완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국어독본」을 툭 채어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넌 또 무슨 재술 바라고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완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냥이나 건힌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 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고, 더구나 귀찮게만 아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 이태준, 「복덕방」 -

* 장전: 장롱과 찬장을 파는 가게.

* 가궤: 부동산 중개인.

31. <보기> 중,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31)

<보 기>

- ㄱ. 인물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 ㄴ. 짧고 감각적인 문장이 반복된다.
- ㄷ.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이 심화된다.
- ㄹ.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ㄷ, ㄹ

국어 영역

32. <보기>와 같이 자료 조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³²⁾[3점]

—<보 기>—

- ㉠ 드팀전: 베, 비단, 무명 같은 온갖 천을 팔던 가게. 인조 직물과 신식 상점의 등장으로 점차 퇴조함.
 ㉡ 참위: 대한제국기(1897~1910)의 장교 계급.
 ㉢ 대정 팔구 년: 1919~20년. 대정(大正)은 일본 국왕의 연호.
 ㉣ 속수국어독본: 총독부가 일본어 보급을 위해 펴낸 책자. 제목의 ‘국어’는 ‘일본어’를 뜻함. 당시 우리말은 ‘조선어’로 불렸음.
 ㉤ 유성기: 축음기. 전축. 당시 유성기는 신문화와 부(富)의 상징.

- ① ㉠을 보니 ‘드팀전’은 근대화에 따라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도 ‘안 초시’는 실패를 자기 운수 탓으로만 돌리고 있군.
 ② ㉡를 보니 ‘서 참위’의 전력을 확실히 알 수 있어. 이 점이 그의 처지와 심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군.
 ③ ㉢를 통해 구체적인 연도와 상황을 알 수 있어. 1920년대에 도 서울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부동산 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이 흥미롭군.
 ④ ㉣의 맥락을 몰랐다면 ‘국어’가 우리말인 줄 알았을 거야. 대서방을 차리기 위해 일본어를 익히고 있는 ‘박희환 영감’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어.
 ⑤ ㉤를 통해 ‘딸’은 가난한 ‘안 초시’와는 달리 부자임을 알 수 있어. 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안 초시’의 희생 덕분이었겠군.

33. <보기>는 1930년대 후반 ‘금광 투기 열풍’의 세태를 묘사한 글이다. 이런 세태에 대한 안 초시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³³⁾

—<보 기>—

‘금’ ‘금’ ‘금’ 금값의 폭등이 잔칫집같이 조선을 발끈 뒤집어 놓았다. 그것은 확실히 획기적인 사실이다. 물론 금광으로 해서 망한 사람이 수도룩하니 많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몇 십만 원짜리 하다못해 몇 천 원짜리의 부자가 수도룩하게 쏟아져 나온 것이 더 잘 눈에 띈다. 또 그것으로 해서 소위 ‘경기’라는 것도 무척 좋아졌다.
 지금 한 괴물이 조선 천지를 횡행한다. ‘금’이라는 놈이다.

- ① 나도 금광으로 큰돈 한번 벌어 봐야겠군.
 ② 북덕방으로 벌어 봤댔자 금광 부자에 비할까.
 ③ 내 손 안의 백통화 한 켤이 금광 열 개보다 낫지.
 ④ 나도 금광 부자가 될 수 있나 없나 화투패부터 떼 보자.
 ⑤ 금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어디서 구해 볼 길이 없을까.

34.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³⁴⁾

- ① ㉠: 죽음을 앞둔 안 초시의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다.
 ② ㉡: 자신의 못생긴 엄지손가락에 대해 자탄하고 있다.
 ③ ㉢: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
 ④ ㉣: 일본어 억양과 어울리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⑤ ㉤: 책의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단(香丹)아 ㉠ 그뱃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_____ [A]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_____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 날은 새여

묶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35. (가)~(나)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³⁵⁾

- ①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6. (가)의 지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³⁶⁾

—<보 기>—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
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
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
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
나 보지.”

- 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미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7. (나)를 영상화한다고 할 때, 각 연을 영상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³⁷⁾

- ① 1연: 화자와 ‘새’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구름’,
‘산’이 있는 원경(遠景)을 포착한다.
- ② 2연: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
면을 어둡게 한다.
- ③ 3연: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
하면서 효과음을 삽입한다.
- ④ 4연: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
해 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
- ⑤ 5연: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새’와 ‘구
름’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둥에 지름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이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췌거니 날 가는 주를 안가 <제1수>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제나 ㉡렛노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허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애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바불 뵈고 녹류(綠柳)에 고기 켜여
노적화총(蘆荻花叢)*에 비 미야 두고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랴실고 <제3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호고 수중(水中)에 ㉤백
구(白鷗) 비(飛)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히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에 시르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제4수>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 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돌 니즌 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제5수>
- 이현보, 「어부단가」 -

*십장홍진: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 즉 속된 세상을 비유한 말.
*청하: 푸른 연잎.
*노적화총: 갈대와 물억새 줄기.
*일반청의미: 이렇게 청아한 뜻.
*제세현: 세상을 구할 어진 인재.

3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8)[3점]

< 보 기 >

이현보는 정계를 은퇴한 후 강호에 은둔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임금이 계신 대궐을 잊지 못했다. 그것은 정치를 통해 태평성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대부의 소명 의식을 저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현보는 소인배들에 의해 혼탁해진 정치 현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자연에서의 평안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었다. 「어부단가」에는 모든 것을 잊고 자연을 완상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대부로서의 소명 의식 사이에서 이현보가 겪은 내적 갈등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어부의 생애’는 강호에 은둔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십장홍진’은 소인배들로 인해 혼탁해진 정치 현실을 상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무심’은 자연에서의 평안을 온전하게 누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시어로 볼 수 있겠군.
- ④ ‘일반청의미’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사는 삶에 가치를 부여한 말로 볼 수 있겠군.
- ⑤ ‘어주’는 잊고 있었던 사대부로서의 소명 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군.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9)

- ① ㉠: 화자가 위치한 공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② ㉡: ‘인세’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삶을 보여 준다.
- ④ ㉣: 근심을 잊고 한가롭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과 연결된다.
- ⑤ ㉥: 현재의 삶을 반성하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날 사향이 틈을 타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금봉차*와 옥장도*를 훔쳐 남자의 사사로운 그릇 속에 감추었더니 그 후에 부인이 잔치에 가려고 봉차를 찾으려 간 데 없는지라. 괴이하게 여겨 세간을 내어 살펴보니 장도 또한 없거늘 모든 시녀를 죄 주었다. ㉡

이때 사향이 들어오며 말하기를,
“무슨 일로 이렇게 요란하십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옥장도와 금봉차가 없으니 어찌 찾지 아니하리오?”
사향이 부인 곁에 나아가 가만히 고하여 말하기를,

“저번에 숙향이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세간을 뒤지더니 무엇인가 치마 앞에 감추어 가지고 자기 침방으로 갔으니 수상합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숙향의 빙옥 같은 마음에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오?”

사향이 말하기를,

“숙향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더니 근간 혼인 의논을 들은 후로는 당신의 세간을 장만하노라 그러하온지 가장 부정함이 많습니다. 어쨌든 숙향의 세간을 뒤져 보십시오.” ㉢

부인이 또한 의심하여 숙향을 불러 말하기를,

“봉차와 장도가 혹 네 방에 있나 살펴보라.”

숙향이 말하기를,

“소녀의 손으로 가져온 일이 없사오니 어찌 소녀 방에 있겠습니까?”

하고 그릇을 내어 친히 찾게 하니 과연 봉차와 장도가 있는 지라. 부인이 대로하여 말하기를,

“네 아니 가져왔으면 어찌 네 그릇에 들어 있느냐?”

하고 승상께 들어가 말하기를,

“숙향을 친딸같이 길렀으나 이제 장도와 봉차를 가져다 제 함 속에 넣고 종시 몰라라 하다가 제게 들켰사오니, 봉차는 계집의 노리개니 이상하지 않으나 장도는 계집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라 그 일이 가장 수상합니다. 어찌 처치하면 마땅하겠습니까?” ㉣

사향이 곁에 있다가 고하기를,

“요사이 숙향의 거동을 보오니 혹 글자도 지으며, 외인이 자주 출입하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승상이 대경하여 말하기를,

“제 나이가 참음에 필연 외인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에 불측한 일이 있을 것이니 빨리 쫓아내십시오.”

(중략)

숙향이 천지 이득하여 침소에 들어가 손가락을 깨물어 벽 위에 하직하는 글을 쓰고 눈물을 뿌리며 차마 일어나지 못하니, 사향이 발을 구르며 숙향을 이끌어 문밖으로 내치고 문을 닫고 들어가며 말하기를,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가라. 만일 승상이 아시면 큰일 나리라.”

하거늘, 숙향이 멀리 가며 승상 집을 돌아보고 울며 가더라. ㉤

한 곳에 다다라 문득 보니 큰 강이 있으니 이는 표진강이었다. ㉠ 어찌할 바를 몰라 강변을 헤매다가 날은 저물고 행인은 드문지라 사면을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 없는지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손에 김수건을 쥐고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

행인이 놀라 급히 구하려 하였으나 이미 어쩔 수 없는지라 모두 탄식하며 그 곡절을 알고자 하더라.

이때 숙향이 물에 뛰어들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 밑으로부터 숙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반석 같았다. 이윽고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사양머리를 한 계집아이가 연엽주를 바베 저어 앞에 다다라 말하기를,

“부인은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하니 그 검은 것이 변하여 계집아이가 되어 숙향을 안아서 배에 올리고 아이 둘은 숙향을 향하여 재배하여 말하기를,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듯 가벼이 버리십니까? 저희는 항아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러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고 용녀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다?”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전에 사해용왕이 수정궁에 모여 잔치를 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트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 하여 감추었더니 부왕이 아시고 노하여 첩을 반하수에 내치시매 물가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 상서*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할 때 옥제 말씀을 듣자오니 ‘소아*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김 상서 집에 적강*한 뒤로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옥만 뵈어 보내라.’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김 상서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원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대가 또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 금봉차: 금으로 만든 봉황 모양의 비녀.

* 옥장도: 옥으로 만든 장식용 칼.

* 김 상서: 숙향의 아버지.

* 소아: 달나라에 사는 선녀. 숙향의 전생의 이름.

* 적강: 죄를 지어 인간계로 쫓겨남.

* 태을: 숙향의 장래 배우자인 이선의 전생의 이름.

4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0)

- ① 부정적 인물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율문투를 사용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할 때,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1)

—<보 기>—

숙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숙향전’의 향유층이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경험이다. 그런데 고난의 해결은 초현실적이다. 당시 독자들이 숙향과 같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숙향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였던 당시 독자들은 숙향의 패배와 죽음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것이 숙향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초월적 존재를 설정한 까닭이다. 요컨대, 숙향의 고난에 동화된 사람들은 고난에 공감하면서 비감(悲感)을, 숙향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는 쾌감을 맛보게 된다. ‘숙향전’에 여러 고난이 반복되는 것은 향유층의 미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향의 적강은 당시 독자들의 현실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이군.
- ② 용녀의 보은은 당시 독자들에게 인과응보의 이치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군.
- ③ 숙향이 여러 고난을 겪는 것은 당시 독자의 비감을 증대시키려는 것이군.
- ④ 옥제가 등장하는 것은 당시 독자들이 타고난 운명을 비판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군.
- ⑤ 숙향과 태을이 만나는 것은 당시 독자들에게 안정된 현실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군.

42. <보기>의 ‘전기수’처럼 위 글을 읽다가 멈추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42)

—<보 기>—

전기수(傳奇叟)는 ‘숙향전’, ‘소대성전’ 등과 같은 국문소설을 장소를 바꿔가며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들은 책을 읽어 가다가 사람들이 꼭 더 듣고 싶어 할 만한 부분을 이르러 갑자기 읽기를 멈추었다. 사람들은 그 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져 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요전법(邀錢法)이다. 전기수의 이런 수법은, 한 장회를 끝낼 때 새로운 사건의 첫 부분만 짧게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고소설의 장회 나누기 방법과 같은 원리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마니 찢는 둔한 기계 소리에 막이 열리면—

명서 (편지 쓰느라고 다른 정신 없이)

사이.

명서의 처 (소리만) 후어! 후어! 저놈의 닭들 봐라! 예구 속상해!

명서의 처, 좌편 입구에서 등장. 호미와 바구니를 든 것을 보면 그가 들에서 일하고 오는 것이 분명하다. 나이에 비하면 아직 기력이 좋아서 능히 자기의 노동을 분담하는 것이다.

명서의 처 (들어오면서) 예구 세상이 약으니까 닭들까지 약아서 사람 소리를 겁을 내야지. (금녀에게) 애야 집에 있으면서 닭이나 좀 쫓으려무나.

금녀 집에 있으면 누가 노우 어머니도 참. 밭이나 다 매고 왔소?

명서의 처 (몸을 털면서) 아랫밭은 다 매고 왔다……. (남편을 보고) ㉠당신은 여태 들고 앉았수. 오늘도

국어 영역

	끝을 못 내구. 아이구 편지 한 장에 며칠이 걸린단 말이요.
명서	㉠.....
명서의 처	그렇게 천정만 쳐다보고 눈만 까무락거리면 무엇이 나오우? 얼른 쓰세요. 일본 가는 삼조가 금방 올 텐데—. 금녀야 내 없는 동안에 삼조가 왔다 가지 않았니?
금녀	아뇨 아직 안 왔어요.
명서의 처	아까 들에서 누가 그러는데 벌써 보통이를 들고 나가드란다..... (부에게) 금년 안에는 꼭 나오라죠 그리 썼어요? 그리고 나을 때에는 돈 좀 가지고 나오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좀 허리를 펴죠.....
명서	왜 이 수선이야 정신 시끄럽게!
명서의 처	얼른 쓰세요. 삼조가 곧 온답니다.
명서	편지란 것은 그리 쉽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야.
명서의 처	대관절 이 편지 들고 앉은 지가 오늘까지 며칠인 줄 아우? 오늘이 사흘째예요. 사흘.
금녀	㉡ 어머니 누가 오나 봐! 개가 짖어요.
삼조, 빙긋빙긋 기쁜 듯이 등장. 시골 청년. 보통이를 들고 색 난 양복에 작업화를 신었다.	
삼조	안녕하시우.
명서의 처	㉢ 아이구 훌륭하다. 양복에다 모자를 쓰고 그렇게 차리고 오니까 개도 몰라보고 짖는 거지.
삼조	저는 일본 갑니다.
명서의 처	아이, 이것 보세요. 내 말이 그른가! 시방 떠나니?
삼조	그럼요 방금 떠나는 길이에요. 명수에게 부칠 게 있다고요?
명서의 처	동장에게나 맡겼으면 벌써 되었을 걸, 돼지 꼬리 같은 글씨를 부비대다가 그만 좋은 인편을 놓쳐 버리지.
삼조	아직 다 안 쓰셨구먼요.
명서	㉣ 거진 다 되어 가는데—.
명서의 처	그 ‘거진’이 또 며칠을 끌 ‘거진’이에요.
금녀	그럼 입으로나 전하시죠. 어머니.
명서의 처	그러는 수밖에 없다. 삼조야, 좀 올라오렴.
삼조	(조조하게) ㉤ 바빠요.
명서의 처	바빠도 이리 좀 걸터앉거나 해라. 우리집 형편을 네가 좀 소상히 듣고 가서 잘 전해 주어야겠다..... 사람이란 별것이 아니구나. 너도 그렇게 꾸미니까 훌륭한 면주사 나오리 같구먼은.
삼조	면주사? 그야 뭘 일본 가서 곤니짜야 곤방야*나 좀 배우고 구두 신을 줄이나 알면 그까짓 면주사쯤이야 부러울 것 없겠지요.
㉢ 일동 험없는 웃음.	

- 유치진, 「토막」 -

* 곤니짜야 곤방야: 일본어 인사말.

43. 위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한 것 중, 분명하게 참인 것은?43)

- ①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명서의 처’이다.
- ② ‘금녀’는 처음부터 ‘명서’가 편지를 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 ③ ‘금녀’는 ‘명수’의 귀국을 바라는 심정을 편지에 담고 싶어 했다.
- ④ ‘삼조’는 ‘명서’의 집에 오기 전에 ‘명수’에게 전할 것이 있음을 알았다.
- ⑤ ‘명서’는 ‘삼조’가 일본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기 전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44. 연출자가 ㉠~㉤에 대해 연기 지시를 할 때, 지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4)

- ① ‘명서의 처’는 원망하는 투로 ㉠을 말하세요.
- ② ㉡에서 ‘명서’는 ‘명서의 처’를 보지 말고 시선을 위로 향하세요.
- ③ ‘명서의 처’는 ‘삼조’를 바라보면서 ㉢을 말하세요.
- ④ ‘명서’는 ㉣을 말하면서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세요.
- ⑤ ‘삼조’는 ㉤을 말하면서 마루에 걸터앉으세요.

4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5)[3점]

- ① ‘명서의 처’는 ㉡를 듣고 경계심을 드러낼 것이다.
- ② ㉡는 음향 담당자가 효과음을 넣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③ ㉡를 통해 ‘금녀’는 ‘명서의 처’에게 사실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④ 관객은 ㉡를 통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⑤ ‘삼조’ 역을 맡은 배우는 ㉡를 근거로 등장 시점을 포착할 수 있다.

8회 정답 및 해설

1) ㉠

<보기>는 화법 영역에서 효과적인 표현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발표 도입부에서 먼저 밝히는 것은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도입부에서 학력 증진을 위해서 학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핵심적 주제를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에 해당한다.

③, ④ 성량, 어조, 시선, 표정, 몸짓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 해당한다.

⑤ 말하기의 목적, 대상, 상황에 적합한 언어 표현 사용하기에 해당한다.

2) 답①

‘학생 1’은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고 싶지만 운동 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체육 활동을 방과 후 수업에서까지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학업 관련 방과 후 수업 개설이 아니라 체육 활동 관련 방과 후 수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것은 학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②, ③, ⑤ ‘학생 2’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④ ‘학생 1’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3) ㉡⑤

㉡은 강연자가 소셜 미디어가 지닌 특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 부분이다.

㉡은 ⑤의 언급처럼 청중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화제를 쉽게 설명하는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

① ㉠은 머리를 긁적이는 행동을 통해 강연에 임한 쑥스러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② ㉡은 강연을 하고 있는 강당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③ ㉡은 점심시간 직후에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적 상황을 고려한 말하기를 나타내고 있다.

④ ㉡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는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말하고 있다.

4) ㉢③

[A]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소셜 미디어의 종류와 특성을 청중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매체의 활용은 ③처럼 제재의 정보나 지식 등을 청중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답②

주인은 학생의 할인 요청을 계속 거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인이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주인에게 다섯 개 반을 더 섭외하겠으니 칠천 원으로 깎아 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볼 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주인은 손님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학생의 할인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③ 학생은 칠천 원에 구입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④ 학생은 주인이 “겨우 한 반 정도의 티셔츠를 팔아서…….”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발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 럼, 티셔츠를 구입하는 반이 더 많으면 가능할까요?”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

⑤ 학생은 주인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자신의 이익도 추구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다섯 개 반의 티셔츠 구입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 답③

2문단에서 번역 도서가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손쉽게 받아들이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는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번역 도서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1문단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출판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번역 도서가 넘치는 이유로 시장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출판사가 상품성이 인정된 책을 단기간에 출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을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번역 도서는 많지만 몇몇 나라의 상업적인 책에 치중해 있고, 출판의 속도는 빠르지만 번역 도서의 질은 떨어지며, 상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명인의 이름만을 차용하거나, 한 권의 원서를 여러 권으로 분책하는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번역 도서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7) 답①

‘오용’은 ‘잘못 사용되다.’라는 뜻의 한자어로 ‘악물 오용으로 부작용이 생긴다.’의 예처럼 사용된다. 여기서는 문맥상 유명인의 이름만을 가져와 사용하는 대리 번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쓰다.’라는 뜻의 ‘차용’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⑥는 출판의 속도는 빠르지만 번역 도서의 질은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사례로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원서를 여러 권으로 분책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출판사의 상업적 전략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하지만 문장의 위치 때문에 앞 문장의 사례로 제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꾸어야 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③ 문장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고려하여 문장 사이에 접속어를 넣어 주는 것이 적절하다.

④ 번역 문화의 개선 방안과는 관련성이 적고, 오히려 시장 개방의 필요성에 관한 서술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상 통일성이 떨어진다.

⑤ 피동 표현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문장에서는 능동 표현으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 좋다.

8) 답⑤

학생은 그림을 보고 표현하라는 작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대상의 행위와 공간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야기를 꾸며내고 하였다. 이것은 그림에 서사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통일성 있는 글을 쓰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예상 독자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것은 작문의 중요한 요건이지만 글쓰기 전략에서 고려한 요건은 아니다.

② 글쓰기 전략에 비유를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으며 학생의 글에도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학생의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남을 돕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두 학생의 행동을 대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글쓰기 전략에서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간적 순서에 따라 글을 쓰고자 하는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9) 답①

인터넷이 다중을 대상으로 하므로 내용을 쉽게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장애인을 돕는 기술과 기구의 발달 과정은 학생의 글의 내용과 동떨어지므로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 위한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시각 자료를 통해 장애인을 도와주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적절한 구상으로 볼 수 있다.

③ 학생의 글에서 한 학생이 시각 장애인을 도와주는 안내견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이퍼링크를 통해 안내견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구상으로 볼 수 있다.

④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에서는 여러 사람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구상으로 볼 수 있다.

⑤ 장애인을 도우면서 일어나는 극적 장면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면서 거부감 없이 장애인을 돕는 자세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구상으로 볼 수 있다.

10) 답④

‘아홉 사람의 덧없는 꿈’이라는 설명에서 제 목의 의미를, ‘뜨거움을 쫓아가듯’에서 비유적 표현을, ‘이 소설은~ 삶을 되돌아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입니다.’에서 작품 읽기를 우회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① 「원고지」라는 제목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모래알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 분, 꼭 읽어 보세요.’라는 표현에서 작품 읽기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② ‘오르막길을 다 올라가면 내리막길이 있듯이’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 시를 통해 ~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에서 우회적으로 작품 읽기를 권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제목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다.

③ ‘풍자 소설의 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에서 우회

적으로 작품 읽기를 권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제목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⑤ ‘「피탄 문답」은 ~ 뜻입니다.’에서 제목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피탄과 같은’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필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에서 작품 읽기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②

음운 변동에서 자음 축약의 경우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면 축약되어 거센소리 ‘ㄱ, ㄷ, ㅂ, ㅈ’이 된다고 하였는데, ②의 ‘좋아도’는 ‘ㄱ, ㄷ, ㅂ, ㅈ’과 만나는 조건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축약의 예에 해당되지 않는다. ‘좋아도’는 [조아도]로 발음되면서 ‘ㅎ’이 탈락되는 ‘음운 탈락’에 해당된다.

① ‘않던’은 ‘ㅎ’과 ‘ㄷ’이 만나 ‘ㄷ’으로 발음되면서 축약 현상을 보이고 있다.

③ ‘맞춰’에서 ‘춰’는 ‘ㅌ’와 ‘ㅈ’가 결합하여 ‘ㄱ’로 축약되고 있다.

④ ‘그려’에서 ‘려’는 ‘ㄹ’와 ‘ㄱ’이 결합하여 ‘ㄱ’로 축약되고 있다.

⑤ ‘와서’에서 ‘와’는 ‘ㅇ’과 ‘ㅌ’가 결합하여 ‘ㅌ’로 축약되고 있다.

12) ㉢②

㉢의 주동문은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나 ㉣의 주동문에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어를 가진 주동문만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① ㉢에서 주동문에 나오는 ‘웃을’이라는 목적어는 사동문에서도 그대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에서는 주동문의 ‘울다’에 접미사 ‘-리-’를 결합하여 사동문을 만들었고, ㉢에서는 주동문의 ‘입다’에 접미사 ‘-히-’를 결합하여 사동문을 만들었다.

④ ㉣에서는 ‘형’이라는, ㉢에서는 ‘엄마’라는 새로운 동작 주체가 나타나고 있다.

⑤ ㉣에서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서 목적어가 되었고, ㉢에서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되었다.

13) ㉢④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영화관에 가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이다. 그 뒤에 부사격 조사인 ‘에’가 붙어 있으므로,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가 술직했음을 알았다.’에서 ‘그가 술직했음’은 명사절로,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14) ㉢④

‘먹다’는 ‘학생들이’와 같은 주어와 ‘음식 을’과 같은 목적어만을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관형어 ‘맛있는’은 부속 성분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도 되는 성분이다.

① ‘되다’는 주어(얼음)와 보어(물)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피다’는 부사어(활짝)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주어(개나리)만

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③ ‘똑같다’는 주어(이것이)와 부사어(실물과)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삼다’는 주어(그는)와 목적어(교직을)와 부사어(직업으로)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15) ㉔⑤

첫 번째 예문의 ‘다리’는 ‘몸을 지탱하는 길쭉한 신체 부분’을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다리’는 ‘아래쪽에 붙어서 물체를 받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단어는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단어의 관계에 있다.

① 첫 번째 예문의 ‘차다’는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를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차다’는 ‘발로 내어 지르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② 첫 번째 예문의 ‘훔치다’는 ‘남의 물건을 남몰래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를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훔치다’는 ‘물기나 때 따위가 묻은 것을 닦아 말끔하게 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③ 첫 번째 예문의 ‘배’는 ‘신체 일부’를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배’는 ‘운송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④ 첫 번째 예문의 ‘들다’는 ‘날이 날카로워 잘 베어지다.’를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들다’는 ‘빛, 별,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오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16)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주어가 2인칭으로 바뀌는 경우

ㄴ의 주어 ‘고원?’을 ‘네(네가)’로 바꾸면 주어가 2인칭이 되므로, 올바른 의문문의 형태는 ‘-ㄴ다’를 사용한 ‘네 이제 었다?’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ㄱ은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모두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ㅏ’의 형태로 끝난다.

② 확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ㄴ은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는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ㅏ’의 형태로 끝나는 반면 현대 국어는 ‘ㅓ’의 형태로 끝난다.

④ 확인: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

ㄷ은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이 쓰인 경우로, 중세 국어는 특이하게 ‘-ㄴ다’의 형태가 사용되었다.

⑤ 확인: 주어가 3인칭으로 바뀌는 경우

ㄷ의 주어 ‘네’를 ‘?리(딸이)’로 바꾸면 주어가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게 된다. 주어가 3인칭일 경우 ‘-ㄴ다’가 의문형 어미로 사용되지 못하므로 ‘엇테’를 고려하여 의문문의 마지막 모음이 ‘ㅏ’의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17) ②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 위치는 일반적인 판 구조론에 비해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즉 한 나라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판 위에 놓여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지구의 판 이론을 좀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아이슬란드 자체가 그 연구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아이슬란드는 그 지질학적 위치와 더불어 판의 절대 속도를 쫓을 수 있는 기준점인 열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과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 특성들이 과학자들이 관심을 두는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하는 열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ㄱ과 ㄷ이 아이슬란드에 과학자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답] ②

18) ③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추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독해라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사고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슬란드의 특수한 지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하였다고 해도 ③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두 개의 판이 만나고 있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을 뿐, 어느 판이 더 빠른 이동 속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나 그와 관련된 정보는 없기 때문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아이슬란드는 화산섬이라는 지질학적 특성이 있어 화산의 열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되어 있음이 1 문단에 드러나 있다. ② 아이슬란드가 위치한 두 개의 판이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위치한 아이슬란드의 크기도 점점 확장된다. ④ 아이슬란드가 위치해 있는 두 개의 판이 점점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지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⑤ 아이슬란드는 대서양의 중앙 해령에 위치해 있다. 즉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분이 해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의 해저 산맥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19) ⑤

정답해설 : ㉠은 기본형이 ‘구하다’인 단어로, ‘알아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하다’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한 것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가장 유사한 쓰임은 ‘문제의 답을 알아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⑤가 가장 유사한 쓰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③은 ‘필요한 것을 찾거나 또는 그렇게 하여 얻다’는 의미이고, ④는 ‘상대편이 어떻게 하여 주기를 청하다’는 의미이다.

20) ④

정답해설 : 글쓴이는 다게르와 톨벳이 만든 사진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술의 발명을 두 사람의 창의적 발상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게르는 니에프스와 의 공동 연구 이후 사진술을 만들었으므로 창의적 발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톨벳의 경우는 글 속에 창의적 발상에 의해 사진술을 만들게 되었다는 진술이 드러나 있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진술이 출현하게 된 상황을 진술하면서 다게레와 톨벳이 상을 얻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② 톨벳이 만든 사진술에 의해 나타난 영상의 약점과 다량 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 있다. ③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의 보급과 콜로디온 기법으로 인한 이 두 타입의 쇠퇴가 진술되어 있다. ⑤ 톨벳의 특허 출원이 기술 확산에 제동을 주었다는 진술이 드러나 있다.

21) ④

정답해설 : (가)에서 다게레오타입에 나타난 사진 영상은 세부 묘사가 탁월하여 매우 정밀한 상을 얻어낼 수 있다고 했으나, (라)에서 칼로타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고 중간색이 거의 없어서 풍경이나 정물 사진에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진술되고 있다. 따라서 칼로타입의 영상에 나타난 특징으로 다양한 중간색을 지정한 ④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라)에 드러나 있다. ② (가)에 드러나 있다. ③ (나)와 (라)에 드러나 있다. ⑤ (다)에 드러나 있다.

22) ③

정답해설 : (다)에서는 톨벳이 만들어낸 칼로타입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칼로타입은 음화-양화 기법으로서 한 번의 촬영으로 다량의 종이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칼로타입의 특허 출원으로 인해서 기술의 확산에 제동이 걸렸음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반응은 (다)의 내용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칼로타입을 다게레오타입보다 우수한 기술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며 더구나 경쟁에서 이겼다는 내용은 (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답] ③

23) ②

정답해설 : 의존 명사 ‘바람’은 ‘-는 바람에’의 구성으로 쓰여 이어지는 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은 ②이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친구들이 떠드는 것이 교실에서 공부를 못 하게 된 것의 이유와 원인이 되고 있다.

24) ②

정답해설 : 이 글은 예술의 개념이라는 추상적 화제를 다루다 보니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서술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상반되는 관점들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게임의 사례를 들어 예술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3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통해 ‘유사성’의 개념으로 글을 이어가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와이츠의 의견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유사성에 의해 성립되는 개념을 가족과 밧줄의 유추를 통해 설명하였고, 여기에서 예술의 열린 개념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1문단과 2문단에서 예술의 본질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있다.

25) ①

정답해설 : 와이츠가 말하는 예술의 ‘열린 개념’은 예술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

라, 그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성립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것이 무한한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에 적합한 개념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확장된다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분명히 그들 안에는 어떤 연관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폭이 넓게 적용될 따름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서 밧줄 속의 실들이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공통적인 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공통적인 속성이 없기에 예술의 본질은 없고, 다만 가족 유사성에 근거한 열린 개념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③ 와이츠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표현이나 형식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26) ④

정답해설 : [가]는 예술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동원한 것이다. 즉, 어떤 대상의 개념을 규정할 때, 과연 본질적 속성이란 존재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가]에서는 게임(A)을 ‘경쟁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가진 것(B)’으로 가정한 후 이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반례에서 ‘경쟁’을 속성으로 가정하면서도 게임이 아닌 전쟁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게임 중에서 경쟁을 속성으로 가지지 않는 혼자 하는 카드놀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A와 B 사이에는 ‘경쟁’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경쟁이 없는 게임과, 게임이 아니면서도 경쟁의 속성을 가진 것이 있기에 둘은 교집합만이 있는 상태의 ④로 표현되어야 적절하다. [정답] ④

27) ②

정답해설 : ㉠에서 ‘밧줄’과 ‘짧은 실’은 예술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구체적인 사물이다. ‘밧줄’은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짧은 실’은 그 개념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다. ㉡는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며, ‘이에 속한 모두에게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머지는 모두 개념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거나,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것들이다. 즉, 나머지는 ‘개념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답] ②

28) ④

정답해설 : 각 문단의 문단 화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변별해 낸다. 주어진 글에는 의병의 전투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그 실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드러나 있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전반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 ② 2문단과 5문단에 드러난다. ③ 5문단에 드러난다. ⑤ 4문단에 드러난다.

29) ③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보기>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근거화 하기에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된다. ㄱ은 백성들의 조정 대신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 민심을 언급하고 있어 ㉡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 ㄴ은 흐름으로 보아 조정에서 의병장에게 내리는 편지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할 것이다. [답] ③

30) ②

정답해설 : [A]는 의병의 입장에서 가족과 마을의 수호를 위한 노력이 의병 봉기의 직접적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②는 충의적 이념에 따른 임금에 충성하기 위한 의병 가담인 만큼 이는 [A]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병에 참여하는 만큼 당연하다. ③ 혈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해당된다. ④⑤ 혈연과 지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31) ③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안 초시, 서 참위, 박희완 영감의 성격이 각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간접 제시되는 동시에 서술자에 의해서 직접 제시되고 있으며, 주로 서 참위의 '복덕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으므로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나. 이 글은 짧고 감각적인 문장보다는 만연체의 긴 문장이 더 많이 쓰였다. 다. 여기 제시된 장면에서는 갈등의 심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32) ⑤

정답해설 : <보기>의 ㉞를 통해 안 초시의 '딸'이 부자임을 알 수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안 초시의 희생 덕분이라고 이해한 것은 이 글과 <보기>의 어디에서도 그 단서를 찾을 수 없다. 제시된 지문 내용에 따르면 안 초시는 자기의 야심 때문에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실패한 것이지 딸을 위해 희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드림전이 인식 상점의 등장으로 점차 퇴조했다는 <보기> ㉞의 설명과 안 초시가 엄지손가락을 댄다는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② '참위'의 직위에 관한 <보기> ㉞의 설명과 서 참위의 인물됨에 대해 언급한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③ 일제 때 쓰던 연호의 의미를 설명한 <보기> ㉞와 서 참위가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하게 된 내력을 언급한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④ 일제 때는 '국어'가 '일본어'를 뜻했다는 <보기> ㉞의 설명과 박희완 영감의 인물됨에 대해 언급한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33) ③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안 초시'는 비록 현재는 몰락한 처지이지만 언젠가 한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과 야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값이 폭등하는 <보기>의 현상을 보고 금광을 통해 자신의 희망과 야심을 구체화하려는 식의 반응을 보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금광 열 개보다 자기 손 안의 백통화 한 푼이 낫다는 반응은 이 글에 제시된 안 초시의 인물됨과 어울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② 안 초시가 복덕방으로 돈을 번 서 참위의 생활을 부러워하지 않았다고 한 데서 그가 복덕방으로 번 돈 정도는 하찮게 여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안 초시가 서 참위의 복덕방에서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떼었다는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⑤ 안 초시가 부자인 딸의 예산 중에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없는 모양이라고 하며 아쉬워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짐작할 수 있다.

34) ④

정답해설 : 「속수국어독본」은 일본어인데 그것을 ㉞의 투로 읽는다고 하였다. ㉞은 「삼국지」를 읽던 '역양으로' 일본어를 읽는다는 뜻이므로, 결국 박희완 영감이 일본어로 된 책을 삼국지 읽듯이 읽기 때문에 그 발음이 일본어 억양과 맞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최후의 십 전이기 때문에 떨리는 것이다. 여기 제시된 지문에서는 아직 안 초시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없다. ② 못 생긴 엄지손가락에 대한 자탄이 아니라 자신의 운수가 나쁨을 탓하는 것이다. ③ 서 참위는 가난하지 않으므로 서 참위가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비판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책이 손때, 머리때에 젖어서 글자가 안 보이는 것이므로 인쇄 상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5) ①

정답해설 : (가)에서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춘향이의 초월적 지향이 첫 연과 끝 연에 나타나 있고, (나)에서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에 비해 현실의 고통에 묶여 있는 화자의 상태를 첫 연과 끝 연에서 대응시키고 있다. 따라서 두 시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킴으로 해서 화자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둘 다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객관적 시각이 아니라 주관적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는 호소적 어조가, (나)는 탄식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36) ⑤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임을 꿈에서나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시에서도 역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현실에서 벗어나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의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 화자는 임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사랑의 상처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미친한 신분을 한탄하는 것은 아니다. ③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지만 단순하게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임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라 임과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37) ④

정답해설 : (나)의 4연은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부정적이고 암울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노래한 것이다. 즉 낮이 밝을수록 침침하고, 별빛은 여위어가고 새는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영상화할 때 화면을 점차 밝게 하는 것은 시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화면을 어둡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1연에서는 ‘새’와 ‘화자’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드러낸다. ② 암울한 상황을 드러낸다. ③ ‘사슬 소리여’라고 했으므로 효과음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⑤ ‘떠나가는 새’와 ‘눈부신 구름’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세계를 상징한다.

38) ⑤

⑤ ‘어주’의 시적 기능

이현보가 자연에 은둔하고 있으면서도 대궐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사대부로서의 소명 의식을 저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주’는 사대부로서의 소명 의식을 떠올리고 있는 공간이지만 그 자체가 있고 있었던 사대부로서의 소명 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는 아니다.

① ‘어부’의 시적 의미

‘어부’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실제 어부라기보다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자(隱者)’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② ‘십장홍진’에 함축된 의미

‘십장홍진’은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라는 뜻으로, ‘티끌같이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③ ‘무심’에 담긴 화자의 정서

‘무심’은 ‘속세에 대한 관심이나 욕심이 없는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④ ‘일반청의미’에 담긴 긍정적 가치

‘일반청의미’는 ‘이렇게 청아한 뜻’이라는 의미로, 자연을 벗 삼아 즐기는 삶에 의미를 부여한 말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39) ⑤

정답 해설 : ⑤ ‘시름’에 담긴 화자의 심리

화자가 현재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시름’은 복결의 일에 대한 화자의 근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만경파’가 갖는 배경으로서의 의미

‘만경파’는 ‘만 이랑의 물결, 즉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이르는 말로, 화자가 ‘바다’에 위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② ‘월백’과 ‘인세’의 대비적 이미지

‘월백’은 ‘달이 밝다’는 의미로, 붉은 먼지로 가득한 인간 세상의 이미지와 달리 맑고 순수한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는 자연적 배경이다.

③ ‘청하’ 속에 담긴 화자의 삶의 태도

‘청하’는 화자가 밥을 싸는 도구로, 그 어떤 품위나 권위도 추구하지 않은 채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삶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④ ‘백구’의 시적 의미

‘백구’는 화자가 시름을 잊고 하나가 되어 노닐고 싶은 자연물, 즉 물아일체(物我一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심을 잊고 한가롭게 지내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과 연결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40) ③

정답해설 : 이 부분은 인물들 간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다. 앞 부분에서는 사향, 부인, 승상, 숙향이라는 인물들이 주고 받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뒷부분에서는 숙향의 행동과 용녀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숙향의 적개심이 달리 표출되고 있지 않다.

② 서술자가 아니라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④ 특별한 배경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산문투로 진술되어 있다.

41) ③

정답해설 : 숙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숙향전을 읽는 사람들이 겪었음직한 현실적인 경험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숙향이 여러 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독자의 동질감과 함께 비감(悲感)을 증대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적강은 비현실적인 경험이다. ② 용녀는 예정되어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④ 천상계와 지상계를 나누고 있는 것은 이중적 세계관을 드러낸 것이지 운명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⑤ 안정된 현실이라기보다는 이루고 싶은 소망을 뜻한다.

42) ⑤

정답해설 : 전기수가 사람들에게 국문소설을 읽어 주다가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하는 장면에서 읽기는 멈추는 것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게 하기 위한 수법이다. 따라서 앞으로 흥미진진한 장면이 펼쳐질 부분에서 멈추게 함으로써 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에서는 숙향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난 이후의 위기적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읽기를 멈춘다면 독자들은 궁금증이 생겨 빨리 읽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답] ⑤

43) ④

정답해설 : 전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활용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명서네를 찾아온 삼조가 “명수에게 부칠 게 있다고요?”라고 말한 내용으로 미루어 ‘삼조’는 ‘명서’의 집에 오기 전에 ‘명수’에게 전할 것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답] ④

44) ⑤

정답해설 : 삼조는 바쁘다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삼조에 대해 명서의 처는 잠시 마루에 걸터앉을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적인 선후 관계로 미루어 이 경우는 삼조가 바쁘다고 말하면서 초조하게 마당을 서성거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편지를 제때 쓰지 못하는 명서를 비난하며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 ② 명서는 지금 편지 내용을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어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시선을 위로 향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명서의 처는 삼조의 차림새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만큼 삼조를 바라보는 것이 어울린다. ④ 아직 편지를 다 쓰지 않은 상태이므로 삼조의 말에 대해 겸연쩍은 표정을 짓는 것이 어울린다.

45) ①

정답해설 : 금녀와 명서의 처는 편지를 전달해줄 ‘삼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만큼 ‘명서의 처’는 개가 짖는다는 금녀의 말을 듣고 경계심을 드러낸다고보다는 반가움을 드러낸다고 보아야 옳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개가 짖는 만큼 이를 나타낼 효과음이 필요하다. ③ 금녀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④ 이후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이끌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⑤ 개가 짓는 것은 삼조의 등장 시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